

국립국어원 2017-01-24

발간등록번호

11-1371028-000672-01

문화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한국수어 영상 자료 구축

연구 책임자 이상용



국립국어원

제출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국립국어원과 체결한 연구 용역 계약에 따라 「문화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한국수어 영상 자료 구축」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사업기간: 2017년 6월 ~ 2017년 12월 15일

2017년 12월 15일

연구 책임자: 이 상 용

연구기관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강원도협회

연구 책임자 이상용
공동 연구원 이윤하, 허인영, 원태연, 유경미, 손경애
보조 연구원 이승수, 김유진

[연구진]

연구 책임자	이상용	한국농아인협회강원도협회장
공동 연구원	허인영	춘천농인교회 담임목사 강원도농아인협회 수어연구위원회 위원
	이윤희	춘천계성학교 교사, 국어학 박사 강원도농아인협회 수어연구위원회 위원장
	원태연	강원도농아인협회 사무처장
	유경미	원주시수어통역센터 부장 강원도농아인협회 수어연구위원회 위원
	손경애	강원도농아인협회 수어연구위원회 위원
보조 연구원	이승수	한국기독교수어연구소 영상제작 팀장
	김유진	강원도수어문화원 연구원

<국문 초록>

문화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한국수어 영상 자료 구축

본 연구는 공공문화시설에 대한 문화 정보를 한국수어 동영상으로 제작하는 것으로써, 농인의 문화시설 이용 및 문화 정보 접근성이 향상된 환경을 구축하여 농인의 문화권(文化權)을 신장하기 위해 추진하였다.

연구의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다.

국립국어원을 중심으로 국립박물관 등 공공문화시설 7개 기관의 협조를 통해 박물관의 주요 유물들에 대한 소개 자료(원문, 사진)를 전달받아 제작을 진행하였다. 국립광주박물관 유물 80점, 국립김해박물관 유물 60점, 국립대구박물관 유물 50점, 국립전주박물관 유물 61점, 국립제주박물관 유물 60점, 국립청주박물관 유물 60점, 부산시립박물관 유물 80점 등 총 451점에 대한 소개 자료를 전달받아 한국어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쉬운 우리말로 풀어내는 윤문 과정을 거친 후 연구진이 한국수어 해설문을 작성하였으며, 농인 수어 해설사 4명을 선발하여 현장 감수자와의 일대일 교육을 통해 문화정보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을 높인 후 동영상 촬영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의 활용 방안은 다음과 같다.

문화 정보 해설 한국수어 영상 자료는 해당 문화시설에 배포해 문화시설을 방문한 농인이 한국수어 해설 영상기기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손쉽게 관람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국립국어원 웹사이트에도 제공하여 농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문화 정보를 편리하게 살펴보고 문화 정보 향유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한다.

더 나아가 관련 전문 분야에서의 활용은 물론 특수교육기관에 보급하여 농아동을 위한 교육 자료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수어해설사 및 수어통역사 양성을 위한 교육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는 문화시설 이용에 제한적이었던 농인들이 한국수어 해설 동영상

을 통해 문화정보에 보다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하게 되어 농인의 문화권 신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끝으로 제언은 다음과 같다.

한국수어 영상 자료 구축 사업의 지속적 추진 필요성을 고려할 때 전문성을 갖춘 수어해설사의 양성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구축된 영상 자료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실태조사와 함께, 보다 많은 농인들이 문화시설을 찾도록 유도하고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하겠다.

주요어: 한국수어, 문화 정보, 농인, 국립박물관

차 례

I. 연구 배경	11
1. 연구의 필요성	13
2. 연구 목적	14
3. 연구의 특징	15
4. 연구의 내용과 추진방법	16
II. 연구 방법 및 과정	17
1. 기존 연구결과 검토	19
2. 1차 자문위원회	19
3. 한국수어 해설문 작성	23
4. 수어해설사 선발과 교육	25
5. 촬영 업체 선정과 계약	25
6. 영상 촬영과 현장 감수(1차)	26
7. 수어해설 영상에 대한 2차 감수	29
8. 영상 재촬영, 편집	30
9. 2차 자문위원회 및 완성	31
III. 결론 및 제언	33
1. 연구 요약	35
2. 활용 방안	36
3. 연구의 의의	37
4. 연구의 한계 및 제언	37
<input type="checkbox"/> 참고문헌	42
<input type="checkbox"/> Abstract	43
<input type="checkbox"/> 부록	45
[부록 1] 수어해설문 작성 지침(안)	47
[부록 2] 문화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한국수어 영상 자료 구축 원고	49

표 차례

<표 II-1> 자문위원회 구성	19
<표 II-2> 제1차 자문위원회 결과 및 연구진 검토 결과	22
<표 II-3> 최종 선정된 문화시설	23
<표 II-4> 박물관별 수어해설 영상자료 제작 대상 유물의 수	24
<표 II-5> 촬영 및 감수 업무 분장	26
<표 II-6> 영상 촬영 및 현장 감수 진행 현황	27
<표 II-7> 수어 해설 영상 감수 목록 및 위원 명단	29
<표 II-8> 감수결과에 따른 영상 재촬영	30
<표 III-1> 기존 사업(2016년) 대비 2017년 사업결과 달라진 점	36

그림 차례

[그림 I-1] 연구의 흐름도	16
[그림 I-2] 자문위원회 자료영상(정지화면)	21
[그림 II-1] 스튜디오 및 현장 감수 모습	28

I . 연구 배경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목적
3. 연구의 특징
4. 연구의 내용과 추진방법

Ⅰ. 연구 배경

1. 연구의 필요성

- 농인은 청각을 통한 음성과 문자 습득의 제한으로 인해 도서관, 미술관, 과학관, 박물관, 공연장 등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 제한된 정보를 접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문화시설과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향유하기 어렵다.
-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문화적인 영역에서도 차별 받지 않는다고 천명하였고(제11조), 「문화기본법」 또한 모든 국민은 신체적 조건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문화를 향유할 권리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제4조).
- 장애인차별금지법 역시 장애인의 문화예술 참여에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책임이 모든 공공기관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제21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는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인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다.
- 같은 법 제16조 2항에는 장애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주에 대하여 안내 서비스와 수어 통역 등의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장애인으로부터 편의제공을 요청받은 시설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위와 같은 법률들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농인은 접근환경이 미비한 문화시설을 이용할 생각조차 못하고 있으며, 이용하더라도 극히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 국립국어원에서 진행한 「수어 기반 문화 정보 접근 환경 지원 기초 조사」(2014)에 따르면 농인들은 도서관과 미술관, 공연장, 청인 종교시설과 같은 문화시설은 방문한 경우가 드물었고, 유명 관광지, 유적지, 영화관, 체육시설, 박물관, 과학관, 동물원, 식물원과 같이 여행이나 여가생활 관련 문화시설은 이용 경험이 있었으나, 이 경우도 1~3회의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이용자의 경우도 만족도가 높지 않았다.
- 그러나 문화시설에서 농인을 위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정보 접근 환경이 마련된다면, 모든 문화시설을 더 자주 이용하겠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유명 관광지, 한국영화를 상영하는 영화관, 박물관, 체육시설, 유적지, 공연장과 같이 여행 및 여가생활 관련 문화시설을 더 많이 이용하겠다고 응답하였다.
- 따라서 농인 역시 자유롭게 이용하는 문화시설이 될 수 있도록 각 문화시설의 문화정보를 한국수어 동영상으로 해설하는 시스템을 완벽히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다양한 문화정보에 대한 한국수어 해설 동영상을 지속적으로 확대 제작, 보급하여야 한다.

2.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박물관 등의 문화 정보를 한국수어 해설 동영상 자료로 구축하여 농인들의 문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문화 향유의 기회와 저변을 확대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문화, 역사 등 다양한 분야 전문 자료를 구축함으로써 농인 대상 교육 교재 및 각종 사전 편찬의 기초 자료를 마련코자 한다.

3. 연구의 특징

1) 농인 당사자 및 한국수어 전문가로 연구진 구성

- 시각언어인 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농인은 자연스럽게 시각중심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본 연구과제가 문화정보를 농인에게 전달하는 콘텐츠 제작이므로 시각언어와 농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농인 당사자이거나 한국수어 및 수어영상제작 등 관련 분야에서 오랫동안 숙련된 전문가를 주축으로 연구진을 구성하였다.

2) 한국수어 관련 사업 유경험 영상 업체 선정과 농인 영상 제작전문가 연구진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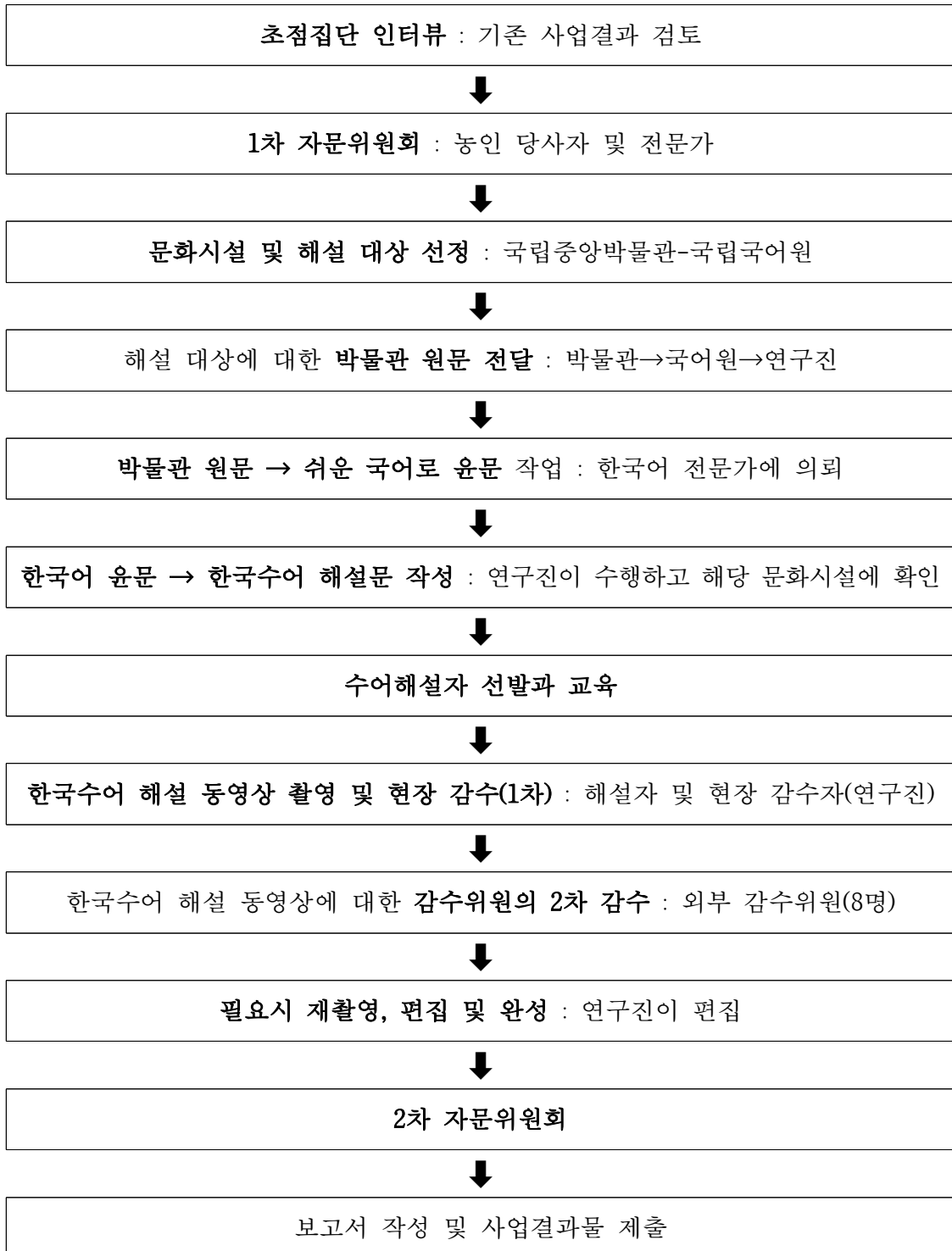
- 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한국수어 관련 영상제작 경험이 많고 역량 있는 전문 업체를 선정하였다.
-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농인당사자로서 한국수어 관련 유자격자이자 영상제작전문가가 연구원으로 참여하였으며, 영상업체는 스튜디오 대역와 촬영 부분만 담당하고 동영상 편집은 해당 연구원이 수행하였다.

3) 작업과정 정교화 설계

- 작업과정의 정교화를 위해 과정별 절차적 장치를 마련, 결과물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 초점 집단 인터뷰(자문위원회 통합운영): 1차 농인당사자 의견 청취 및 반영
 - 2회의 자문위원회를 통해 농인당사자 및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 및 반영
 - 한국어 전문가가 참여하는 윤문(潤文, 쉬운 국어) 작업을 신설하고 해당 박물관 검수
 - 한국수어 해설문에 대한 해당 박물관 검수
 - 한국수어 해설 동영상 촬영 시 현장 감수 (1차)
 - 한국수어 해설문 작성 연구진의 촬영현장 상시 모니터링 참여
 - 한국수어 해설 동영상에 대한 외부 위촉 전문 위원회의 2차 감수

4. 연구의 내용과 추진방법

○ 본 연구는 다음 [그림 1-1]과 같은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하였다.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II. 연구 방법 및 과정



1. 기존 연구결과 검토
2. 제1차 자문위원회
3. 해설 시나리오 작성
4. 수어해설사 선발과 교육
5. 촬영 업체 선정과 계약
6. 영상 촬영과 현장 감수(1차)
7. 수어해설 영상에 대한 2차 감수
8. 영상 재촬영, 편집
9. 2차 자문위원회 및 완성

II. 연구 방법 및 과정

1. 기존 유사 연구결과에 대한 검토 및 평가

1) 이미 구축되어 있는 한국수어 문화 정보 및 문화시설에 대한 검토

- 2015년 「한국수어 전문용어, 문화 정보 구축」, 2016년 「문화정보 해설 한국수어 영상 자료 구축」 등 국립국어원이 시행한 기존 연구결과물에 대한 조사, 검토, 평가를 통해 본 사업의 성공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들은 참고, 반영하는 등 사업의 효율성과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2. 1차 자문위원회

1) 초점 집단 인터뷰(FGI), 자문위원회 통합 운영

- 본 연구과제가 지난 2개년 동안 시행한 관련사업과 내용 및 추진 방법이 유사하므로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립국어원과 협의를 거쳐 초점 집단 인터뷰(FGI)와 자문위원회를 통합·운영 하였다.
- 초점 집단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 성격을 겸하는 점을 고려하여 문화시설 및 문화 정보 한국수어 영상에 관심이 있거나 제작 참여 경험이 있는 농인, 농인의 문화권에 관심을 두고 활동해온 청인 전문가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표 II-1〉 자문위원회 구성

연번	이름	소속	비고
1	송재림	2016년 연구참여 / 전 경기광주시지회장	
2	임승택	한국농아인협회 이사 / 데프플러스 대표	

3	이현석	한국농아인협회 총무과장 / 전 정보방송부장	
4	김정환	서울농아인협회중랑구지회장	
5	안석준	더사인대표 / 수어전문가	청인
6	양홍석	평택 시온성 농인교회 목사 / 평택 등대 농문화센터장	
7	오진영	한국농아인협회 수어정책과장 / 2015,2016 연구참여	청인
8	전성우	강원도농아인협회정선군지회장 /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수어교원학과 석사과정	
9	함종만	강원도농아인협회 수어연구위원회 위원 / 횡성군수어통역센터장	
10	조문호	인제군수어통역센터장 / 서양화가	
11	김운식	원주시수어통역센터 농통역사 / 사진가	
12	최우영	횡성군수어통역센터 농통역사 / 한국사능력 1급	

○ 자문위원회 개최 2일전 2015년과 2016년에 구축한 박물관 등 문화시설에 대한 한국수어 해설 영상과 올해 시험 제작한 영상(3종, 각 2개 샘플)을 자문위원 각각에게 전자 우편으로 전송, 사전에 비교, 검토한 후 회의에 참석토록 안내하였다.

- 비교·검토할 수어 해설 영상 선정: 2015년, 2016년, 2017년 각 2개씩
- 2015년 연구결과물: 국립중앙박물관 갈돌 / 감지금니묘범연화경 권제7
 - 2016년 연구결과물: 국립경주박물관 굽다리접시 / 가슴걸이
 - 2017년 영상샘플: 부산시립박물관 금정산성 진지도 / 덩이쇠

○ 2017년 7월 8일(토), 용산역 회의실에서 진행한 제1차 자문위원회에서 위 영상 샘플을 제시한 후, 연구진의 질문에 대해 답변과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하였다.

○ 연구진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 유물에 대한 한국수어 설명에서

- ①표현의 적정성, ②수어 해설의 속도(빠르기), ③한국수어 해설 영상의 배경 색상, ④한국수어해설자(모델) 의상의 색상 및 디자인, 머리 모양, 메이크업, ⑤영상의 유물사진 위치와 크기, ⑥한글자막의 적정성(위치, 색상, 크기, 글씨체 등), ⑦화면 분할 및 구성 등에 대한 의견, ⑧농인의 문화권 신장을 위해 한국수어 문화 정보 영상 제작 전반에 대한 발전적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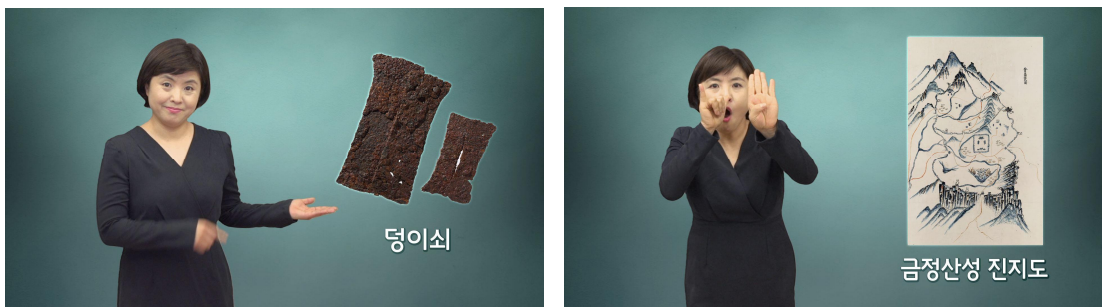
2015년 샘플 영상: 국립중앙박물관 (출처: 한국수어사전 문화정보수어)



2016년 샘플 영상: 국립경주박물관 (출처: 한국수어사전 문화정보수어)



2017년 샘플 영상 (출처: 강원도농아인협회, 부산시립박물관 사전제작 영상)



[그림 I -2] 자문위원회 자료영상(정지화면)

〈표 II-2〉 제1차 자문위원회 결과 및 연구진 검토 결과

구분	1차 자문위원회 결과	연구진 검토 결과
지명표현	지명은 지문자와 함께 표현할 것	반영
수어 표현	수어사전의 단어 표현에 엄매이지 말고, 농인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중심으로 작업할 것	최대한 반영
의상	손이 잘 보이도록 소매를 약간 짧게(9부)하고, 목을 가리지 않는 들레가 둥근 모양의 상의, 품은 중간	반영
배경 색상	2017년 부산시립박물관 배경이 적당함. 단, 해설자 배경을 상대적으로 밝게 시작하여 유물 위치로 갈수록 단계적으로 어두워지는 그라데이션 효과를 넣을 것	반영
유물 사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상의 처음과 마지막에 사진을 확대하여 제시 •박물관 관람 시 유물이 눈앞에 있고, 누리집에도 큰 유물사진이 있으므로 효과가 없을 것 	일부 반영 - 영상 시작 시에만 유물의 확대사진 제시
유물 정보 자막	자막은 나눔고딕체, 흰색으로 하되 제작 시기나 출토지의 위치 등 부가 정보는 해설자를 가리지 않도록 유물 사진 하단(오른쪽) 유물명 아래에 표시	모두 반영
화면 분할	수어해설 정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해설자 60%, 유물 사진 40%의 비율로 조정할 것	반영
전문가 발굴 및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상 사업 분야 농인전문가 양성 필요성 제안(영상 전문가, 수어해설사, 뷰티메이크업 등) •수어해설사 공개 모집 활용 방안 	향후 중장기 발전방안으로 제안 미경험 수어해설사(2명) 사업 참여

2) 문화시설 선정

- 2017년 「문화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한국수어 영상자료 구축」 연구과제 대상은 국립국어원이 국립중앙박물관과 협의하여 선정한 국립광주박물관, 국립김해박물관, 국립대구박물관, 국립전주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국립청주박물관, 부산시립박물관 등 7개 공공문화시설이다.

〈표 II-3〉 최종 선정된 문화시설

연번	문화시설명	주소	홈페이지
1	국립광주박물관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 110	http://gwangju.museum.go.kr
2	국립김해박물관	경남 김해시 가야의길 190	http://gimhae.museum.go.kr
3	국립대구박물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호로 321	http://daegu.museum.go.kr
4	국립전주박물관	전북 전주시 완산구 쑥고개로 249	http://jeonju.museum.go.kr
5	국립제주박물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주동로 17	http://jeju.museum.go.kr
6	국립청주박물관	충북 청주시 상당구 명암로 143	http://cheongju.museum.go.kr
7	부산시립박물관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63	http://museum.busan.go.kr

3. 한국수어 해설문 작성

- 본 연구를 통해 제작한 한국수어 해설 영상은 국립광주박물관 유물 80점, 국립김해박물관 유물 60점, 국립대구박물관 유물 50점, 국립전주박물관 유물 61점, 국립제주박물관 유물 60점, 국립청주박물관 유물 60점, 부산시립박물관 80점으로 총 451편이다.
- 이 중 부산시립박물관 80점은 부산박물관 공사 및 재개관 일정에 맞추기 위해 다른 박물관에 우선하여 6월 30일까지 한국수어 해설 영상 제작을 완료하였으며, 이후 7월부터 국립광주박물관을 비롯한 6개 문화시설에 대한 작업을 진행하였다.
- 국립국어원과의 기술협상에 따라 박물관의 유물 해설 원문(原文)을 쉬운 한국어로 다듬는 작업(이하 윤문, 潤文)은 관련전문가를 섭외하여 별도 의뢰하였다. 강원대학교 한국어문화원(원장: 한길 국어국문학과 교수).

○ 동영상 촬영 전까지의 작업 과정

- 국립국어원의 협조를 통해 본 사업 대상 문화시설(박물관)로부터 해당 문화정보를 설명한 원문과 사진 자료를 받는다.
- 한국어 전문가(강원대학교 한국어문화원)에 의뢰하여 유물 등 해당 문화정보에 대한 원문을 쉬운 국어로 다듬는다(윤문 작업).
- 윤문 작업한 설명문을 토대로 연구진이 한국수어 해설문을 작성한다.
- 윤문과 해설문 작성 과정에서 중요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누락 또는 왜곡 사항이 없는지 해당 문화시설의 검수를 거친다.
- 한국수어 해설문 작성 지침(기준)을 수립하여 적용한다.

〈표 II-4〉 박물관별 수어해설 영상자료 제작 유물의 수

연번	문화시설명	수량	비고
1	국립광주박물관	유물 80점	
2	국립김해박물관	유물 60점	
3	국립대구박물관	유물 50점	
4	국립전주박물관	유물 61점	
5	국립제주박물관	유물 60점	
6	국립청주박물관	유물 60점	
7	부산시립박물관	유물 80점	
합계		총 451점	

- 한국어 전문가에 의뢰하여 윤문 작업을 완료한 상태에서 일부 수정된 2차 원문을 다시 보내오는 박물관이 있어 윤문작업을 2차례 수행하게 되면서, 예산을 조정하여 집행하기도 하였다.

4. 수어해설사 선발과 교육

- 수어해설사는 한국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며, 한국수어와 한국어 문해 능력에 능통한 농인으로 하였다.
- 수어 동영상 촬영 경험이 풍부한 전문 수어해설사 2명을 비롯하여 수어해설사 양성을 주문한 자문위원회 제안에 따라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미경험자 2명 등 총 4명을 선발하였다.
- 수어해설사의 의상은 자문위원회 제안을 반영하여 문화시설 소개에 맞는 단색의 차분하고 어두운 색상으로 하되, 소매는 9부 정도로 하고, 헐렁하지도 몸에 너무 붙지도 않는 중간 품의 의상으로 하였다.
- 수어해설사의 의상은 무늬가 없는 어두운 계열의 단색으로 하고, 머리는 흑갈색으로 하고 얼굴을 가리지 않도록 주문하였으며, 액세서리 착용 및 진한 화장을 하지 않았다.
- 본 연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처음 참여하는 수어해설사 2명은 동영상 촬영시기를 후반부로 하고, 이미 경험이 있는 해설사의 촬영 현장을 수차례 참관토록 하였다. 또한, 문화 정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내용의 학습 및 사전 숙지를 위해 한국수어 해설문과 유물 사진을 최대한 빨리 전달코자 하였으며, 촬영일 전에 현장 감수 또는 연구진과 수어해설사의 일대일 교육을 진행하여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5. 촬영 업체 선정과 계약

- 본 연구의 촬영 업체는 강원도에서 수어 관련 영상제작 경험이 가장 많은 ‘비즈커뮤니케이션(대표: 유영진)’을 선정하였다.

6. 영상 촬영과 현장 감수(1차)

- 제1차 자문위원회 의견과 연구진 검토사항을 반영하여 한국수어 해설 영상을 제작하였다.
- 문화 정보 한국수어 동영상 촬영은 외부 감수위원 농인 2명과 연구진 농인 1명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수어 해설의 오류를 줄이고 영상물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한국수어 해설문 작성 연구진(청인) 1명 이상이 현장에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표 II-5〉 영상 촬영 및 감수 업무분장

연번	문화시설명	수량	현장감수	모니터링
1	국립광주박물관	유물 80점	허인영	유경미 손경애
2	국립김해박물관	유물 60점	김용환	유경미 손경애
3	국립대구박물관	유물 50점	허인영	유경미 손경애
4	국립전주박물관	유물 61점	허인영	유경미 손경애
5	국립제주박물관	유물 60점	김용환	유경미 손경애
6	국립청주박물관	유물 60점	김용환	유경미 손경애
7	부산시립박물관	유물 80점	양홍석	유경미 손경애

- 연구진의 당초 추진 일정은 10월초 긴 추석 연휴(10일)를 감안하여 9월 까지 문화 정보 한국수어 동영상 촬영과 현장감수를 마치고, 10월에는 동영상에 대한 전문위원 감수(2차)와 재촬영 등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박물관 원문 및 사진자료 전달이 늦어지는 등의 이유로 진행이 다소 지연되었다. 박물관별 진행결과는 〈표 II-6〉과 같다.

〈표 II-6〉 영상 촬영 및 현장 감수 진행 현황

연번	문화시설명	유물연번	수량	일정	해설사	현장 감수	현장 모니터링	비고
1	국립 광주박물관	1~20	20	10.17	이은영	허인영	유경미 손경애	
		21~48	28	10.19				
		49~80	32	10.23				
2	국립 김해박물관	1~39	39	9.4	이학녀	김용환	유경미 손경애	
		40~60	21	9.5				
3	국립 대구박물관	1~16	16	9.12	이진호	허인영	유경미 손경애	
		17~50	34	9.14				
4	국립 전주박물관	1~15	15	9.11	김아름	허인영	유경미 손경애	
		16~30	15	9.15				
		31~43	13	9.22				
		44~61	18	9.25				
5	국립 제주박물관	1~38	38	9.5	이학녀	김용환	유경미 손경애	
		39~60	22	9.7				
6	국립 청주박물관	1~37	37	9.18	이학녀	김용환	유경미 손경애	
		38~60	23	9.19				
7	부산 시립박물관	1~25	25	6.12	이은영	양홍석	유경미 손경애	
		26~80	55	6.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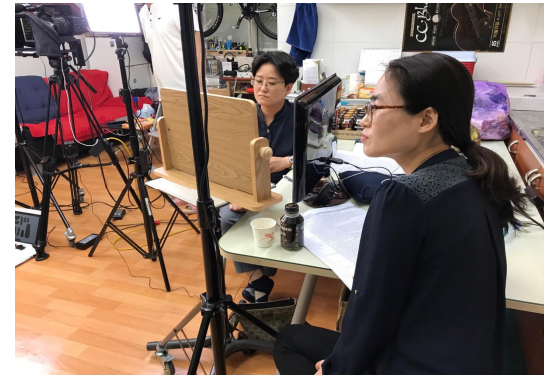
1차 연구진 회의



수어해설사, 감수 위원의 사전 준비



농인 감수 위원의 현장 감수



한국수어 해설문 작성 연구진의
현장 모니터링



4명의 수어해설사

[그림 II-1] 스튜디오 및 현장 감수 모습

7. 수어 해설 영상에 대한 2차 감수

- 촬영을 마친 한국수어 해설 영상 451편은 전문 감수위원의 감수를 거쳤다.
- 2차 감수는 가편집한 동영상은 박물관별로 별도의 이동식저장장치(USB메모리)에 옮겨 담고, 한국수어 해설 영상에 대한 감수 의견 기록 용지와 함께 반송용 봉투를 동봉하여 감수 위원 각각에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 감수 위원은 수어를 제1언어로 하는 농인으로만 구성하였으며, 수어영상 제작에 참여한 경력이 있거나 그러한 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분들로 선정하였다. 감수위원은 <표 II-7>과 같다.

<표 II-7> 수어 해설 영상 감수 목록 및 위원 명단

연번	문화시설명	수량	감수위원	감수기간
1	국립광주박물관	유물 80점	송재립 전 경기광주시지회장	10.25~10.27
2	국립김해박물관	유물 60점	강주해 주은농선교교회 담임	9.27~10.12
3	국립대구박물관	유물 50점	이주애 강남대학교 박사과정	9.27~10.12
4	국립전주박물관	유물 61점	김학규 춘천계성학교 교사	9.27~10.12
5	국립제주박물관	유물 60점	장진권 서울농학교 교사	9.27~10.12
6	국립청주박물관	유물 60점	손천식 목사	9.27~10.12
7	부산시립박물관	유물 80점	손천식 목사 송재립 전 경기광주시지회장	6.16~6.19

- 한국수어 영상 가편집본에 대한 감수 결과
비표준 수어 어휘 사용, 비중립적 표현(부정적 뉘앙스)으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해 여지 있음, 지명에 대한 지문자 오류, 부정확한 수어 표현, 주요 어휘(수어 표현) 누락 등의 의견이 있어 연구진 검토를 거쳐 재촬영을 진행하였다.

- 대부분의 감수 의견이 영상 편집상의 오류에 대한 지적 보다는 수어 표현에 집중된 점은 기존 연구결과물(2015년, 2016년)의 사전검토와 제1차 자문위원회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사업을 진행한 결과로 분석된다.

8. 영상 재촬영, 편집

- 감수 위원의 2차 감수 결과와 국립국어원의 의견을 반영하고, 연구진 회의를 거쳐 재촬영 대상을 결정하였으며, 재촬영 목록 일정은 <표 II-8>과 같다.

<표 II-8> 감수결과에 따른 영상 재촬영

문화시설명	유물 연번	편수	일정	현장 감수	수어해설사
국립광주박물관	51, 70, 77, 79	4	10.30	허인영	이은영
국립김해박물관	1, 3, 5, 7, 11, 15, 20, 21, 24, 28, 42, 49, 52, 53, 55, 59, 60	17	10.26	김용환	이학녀
국립대구박물관	16, 33	2	10.26	허인영	이진호
국립전주박물관	1, 18, 23, 24, 29, 36, 40, 48	8	10.26	허인영	김아름
국립제주박물관	1, 3, 6, 11, 14, 17, 32, 51, 57	9	10.26	김용환	이학녀
국립청주박물관	7, 20, 23, 30, 56	5	10.26	김용환	이학녀
부산시립박물관	8, 16, 28, 59, 61, 62, 66, 70, 75	9	6.26	양홍석	이은영

- 재촬영과 영상편집을 마친 가완성본에 대해 연구진 검토를 실시하여 자막 오류, 띄어쓰기 오류, 사진 누락 또는 사진 오류, 부가 정보(출토지) 오류, 부가 정보(연대) 자막 위치 수정, 문장 부호 누락, 배경이 사라지고 검은 색으로 바뀌는 등의 영상편집의 오류를 수정하였다.

9. 2차 자문위원회 및 완성

- 2016년 10월 21일(토) 제2차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다.
2015년, 2016년 제작한 각 1개의 영상과 2017년 제작했으나 1차 자문위원회 전에 완성된 영상 1개, 1차 자문위원회 이후에 제작한 영상 샘플 5개 등 총 8개의 영상 샘플을 제2차 자문위원회 개최 2일전(10.19) 자문위원 각각에게 전자 우편으로 전송, 사전에 비교·검토한 후 회의에 참석토록 안내하였으며, 올해 사업결과물(수어해설 영상)이 지난 1차 자문위원회(2017.7.8.)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수행되었는지를 집중적으로 검토 요청하였다.

- 자문위원 대부분은 제1차 자문위원회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농인이 문화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잘 만들었다는 의견이었다. 특히 새롭게 적용된 배경 색상과 유물의 부가 정보가 들어가는 자막의 위치(우측 하단), 영상 첫 화면에 확대한 유물사진 제시 등 새로운 시도가 좋았다는 평가가 있었다.

- 향후 발전적 제안으로는, 지명을 지문자와 지명수어로 함께 표현했듯이 나라 이름(고조선, 고구려, 고려 등)도 지문자를 함께 표현하는 것이 좋겠다, 박물관 유물정보 한국수어 동영상 관람을 위한 사전 설명 매뉴얼(역사 연대 및 나라이름 등)도 제작·배포하는 것이 좋겠다, 일부 수어 표현이 한국어 문장에 영향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이 있다, 해설사의 시선 처리나 어깨 움직임이 보다 생동감 있게 표현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수어해설사 공개 채용, 박물관 이외에 전쟁기념관, 한글박물관, 역사박물관, 근대역사관, 독립기념관, 서대문형무소, 영화역사관, 미술관 등 다양한 역사·문화시설로 사업을 확대할 것을 제안하는 의견도 있었다.

III. 결론 및 제언



1. 연구 요약
2. 활용 방안
3. 연구의 의의
4. 연구의 한계 및 제언

Ⅲ. 결론 및 제언

1. 연구 요약

- 본 연구는 공공문화시설에 대한 문화 정보를 한국수어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농인의 문화시설 이용 및 문화 정보 접근성이 향상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본 연구를 통해 전국 7개 박물관에 전시중인 역사 유물 451점에 대한 문화정보를 한국수어 해설 영상 자료로 제작하였으며, 이를 통해 농인의 문화와 역사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본 연구는 국립국어원을 중심으로 국립광주박물관, 국립김해박물관, 국립대구박물관, 국립전주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국립청주박물관, 부산시립박물관의 협조를 통해 박물관의 주요 유물들에 대한 소개 자료(원문, 사진)를 전달받아 진행하였다.
- 국립광주박물관 유물 80점, 국립김해박물관 유물 60점, 국립대구박물관 유물 50점, 국립전주박물관 61점, 국립제주박물관 유물 60점, 국립청주박물관 유물 60점, 부산시립박물관 유물 80점 등 총 451점에 대한 소개 자료를 전달받아 한국어 전문가에 의뢰하여 쉬운 우리말로 풀어내는 운문 과정을 거친 후 연구진이 한국수어 해설문을 작성하였으며, 농인 수어해설사 4명을 선발하여 현장감수자와의 일대일 교육을 통해 문화 정보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을 높인 후 동영상 촬영을 진행하였다.
- 이후 문화 정보 해설 한국수어 영상 촬영분과 편집분에 대한 연구진의 1차 검토와 전문 감수 위원 2차 검토를 거쳐 일부 촬영분에 대한 재촬영을 진행하여 완성하였다.

<표 III-1> 기존 사업(2016년) 대비 2017년 사업에서 달라진 점

구분	기존(2016)	변경(2017)	효과
배경색상	진녹색	청록회색 그라데이션 효과	눈의 피로감 감소
화면구성 비율	해설자:유물사진 50:50	해설자:유물사진 60:40	수어해설 집중도 향상
자막위치	해설자 하단	유물사진 하단	유물의 부가정보 확인 용이
유물사진(확대)	-	수어해설 전 유물사진 확대 효과	유물에 대한 집중도 향상
윤문 과정 신설	-	한국어전문가 사업 참여	수어해설문의 정확도 향상
영상제작	외부 스튜디오	농인 영상제작전문가 연구 진 참여 -영상편집 일체 업무분장	사업추진 효율성 및 결과물의 완성도 향상
현장 모니터링	-	현장 모니터링 실시 - 해설문 작성 한국수어 전 문가(청인 연구진)	촬영시 오류를 최소화하 고 결과물의 정확도 높임

2. 활용 방안

- 해당 문화시설(박물관 등)에 동영상을 배포해 시설을 방문한 농인이 한
국수어 해설 영상기기를 통해 관람 및 이용할 수 있다.
- 또한 모바일 기기용 근거리 통신 기술인 비콘(Beacon)이나 정보무늬
(QR코드) 제작과 연계해 농인이 스마트기기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관련 문화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
- 국립국어원 웹사전과의 연계를 통해 농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문화 정보
를 편리하게 살펴보고 문화 정보 향유 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다. 또한
국의 농인들에 한국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우리
나라의 우수한 문화 접근 수준에 대한 홍보 효과도 거둘 수 있다.
- 향후 특수교육기관에 보급하여 농학생을 위한 교육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농인 관련 단체를 통해 농성인 대상 평생교육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 수어해설사 및 수어통역사 양성을 위한 교육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다.

3. 연구의 의의

- 본 연구는 정보접근의 어려움으로 문화시설 이용에 제한적이었던 농인들이 한국수어 해설 동영상을 통해 문화 정보에 보다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하게 되어 농인의 문화권 신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 농인이 문화 관련 전문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은 물론, 향후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공공문화시설, 교육시설을 비롯하여 민간영역에도 한국수어 영상 자료 구축에 대한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는 촉매가 될 수 있다.
- 더불어, 한국수화언어법 시행으로 국외 농인들이 한국의 선진 정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시기에 한국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한류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

4. 연구의 한계 및 제언

1) 윤문 과정 재고

‘원문-윤문-수어해설문’의 순으로 작업을 진행하였으나 일부 원문의 경우 이미 윤문 작업을 거쳐 박물관의 일반 관람객들에게 음성해설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별도로 추가 작업이 필요 없는 대본이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소요되는 시간과 예산의 효율성을 생각할 때 일률적인 윤문 작업에 대해서는 재고해야 할 것이다.

2) 수어에 대한 학예사의 이해

수어해설문은 농인이 윤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청인 수어통역사가 1차 번역을 한 것이다. 이 해설문을 작성한 후 내용상 누락이나 왜곡이 없는지 박물관 학예사의 확인을 거쳤다. 수어해설문은 이해하기 쉽게 복합문을 단

문으로 고치고 내용 순서를 내부 지침에 맞게 정리하여 배열하는 등 다듬는 과정을 거치긴 하였으나 공식적으로 통용되는 수어문자가 없어 한국어로 작성하였다. 게다가 수어에 대한 이해가 없는 학예사의 오해를 막기 위해 한국어 문법에 맞게 표현하고 가능한 한 원문의 많은 어휘들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결국 정확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농인에게 상당한 한국어 실력이 요구되었다. 이것은 즉, 오역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행히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촬영 현장에 수어해설문을 작업한 연구자가 투입되어 함께 작업하였다.

추후 이 사업을 진행할 때는 보다 한국수어에 가깝게 표현하기 위해 한국어 문법이나 어휘에 얽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확인을 맡은 학예사가 한국어를 수어로 번역하기 위한 기초 작업인 수어해설문의 목적을 알고 어휘의 단순화, 한국어 문법과 일치하지 않는 문장 구성 등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할 것이다.

3) 학술 자문 필요

수어는 시각언어이다. 따라서 유물을 설명할 때 단순히 그 명칭이나 목적을 직역하여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동작 설명이 들어간다.

예를 들어 ‘가락바퀴는 실을 만드는 도구이다’ 라는 문장을 설명한다면 가락바퀴를 어떻게 돌려서 실을 만드는지 그 모습을 재현하며 설명을 한다. 또 곡식 이삭을 따는 데 사용하는 ‘반달돌칼’ 을 설명할 때도 이 도구를 어떻게 잡아서 어떤 모양으로 이삭을 따는지 구체적인 동작이 포함되어야 한다. 결국 원문에서 주어진 정보로는 유물을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다.

수어해설문을 작성한 연구자들이 미리 자료를 찾아보거나 현장에서 인터넷 검색 등으로 정보를 제공하여 촬영하였지만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피상적인 설명에 그쳐야 해 아쉬움이 남는다.

같은 선상에서, ‘투각기법’, ‘칠세부모’ 등 조형 기법이나 불교의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 등장하면 그 의미를 파악하고 전달하는 것이 쉽지 않다. 전문 어휘를 지문자로 처리하고 넘겨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일

반적인 포털 검색부터 전문 학술지 등을 참고하기도 하여 내용을 보다 명확히 전하려 했지만 본 연구진이 미술이나 종교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므로 한계가 있었다. 물론 한계에 이르는 부분의 수가 많지는 않더라도 전문가에게 자문 한다면 훨씬 수월한 작업이 될 것이다.

박물관별 학예사의 연락처를 알고 있었으나 해설문 작업에서도 언급했듯, 본 작업에 대한 해설사의 이해 및 관심이 중요한데 비해 관계 구축이 되어 있지 않아 도움을 받기 어려웠다. 시간에 쫓겨 진행된 사업상의 한계라 생각하며 차후 이 사업을 진행할 때는 박물관 측과의 만남을 통해 사업 설명 및 협조 요청을 하는 것이 좋겠다.

4) 구체적인 유물의 사진 등 정보 필요

유물에 대한 설명에서 유물의 무늬, 색감, 형태 등에 대한 설명이 상세하게 되어 있으나 사진 정보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았다.

원문에는 ‘용 두 마리가 표현되어 있다’는 정도로 기록되었을 때 수어로 어느 위치에서 어떤 방향으로 얼마만한 크기로 표현이 되었는지 구체화시켜 묘사해야하기 때문이다. 물론 도무지 정보를 얻을 수 없을 때는 단순히 ‘용 두 마리가 있다’는 식으로 건조하게 설명할 수 있으나 이는 수화 언어에 맞지 않고 의미도 잘 전달되지 않을 것이다.

추후 작업에는 유물의 내용에 따라 일반 사진 외에 상세 사진들을 받아볼 수 있어야 할 것이고 기회가 된다면 박물관에서 유물을 직접 보는 것이 정확하고 생동감 있는 해설을 가능케 할 것이다.

5) 질적 향상을 위한 협력팀 구축 필요

앞서 제시한 2) ~ 4)의 내용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수어해설은 대체로 수어해설사와 현장 감수의 역량으로 구성되고 내용에 따라 현장에 함께한 청인 연구자가 함께 논의하고 협력하였으나 농인 수어해설사의 수어표현 역량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았다.

가능하다면 수어해설사와 농인 및 청인 연구자, 학예 연구사 등이 모여 유물에 대한 충분한 이해, 최상의 표현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할 수 있는 협력 기회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6) 문화정보 수어의 연구 및 사전 등재

박물관 유물을 수어로 설명하면서 사용한 수어 어휘 중 일부가 한국수어사전(<http://sldict.korean.go.kr>)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농인이 문화정보 수어 콘텐츠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유물을 설명하기 위해 표현된 수어를 별도의 연구 및 논의를 통해 한국수어사전에 등재함으로써 한국수어사전의 전문용어 수어를 확대하고, 한국수어 전문용어와 문화정보 수어를 서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예: 고인돌, 구석기, 신석기 등)

7) 수어 설명문 문단에 대한 언어학적 연구

한국수어 설명문의 구조와 단락 간의 관계, 제시 순서 등에 대한 언어학적 연구가 필요하다. 한국수어 설명문의 구조(핵심 제시, 나열, 비교 및 대조, 인과 설명 등)와 유물을 설명하는 수어문의 제시 순서(명칭 제시, 내용 설명하기, 요약하기, 결론 내리기 등)에 대한 언어학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8) 연구자의 역사적 지식 필요

원문의 내용을 전달할 때 유물 자체에 대한 정보와 지식도 필요하지만 역사적 이해와 지식이 수반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삼별초가 여몽연합군과 맞서 싸웠다’는 간단한 내용을 활자 그대로 설명한다면 틀린 것은 아니나 진정한 의미전달이라 할 수 없다. 여기에서는 ‘여몽연합군’을 지문자로 처리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고려(조정)와 원나라 연합군이라는 부가적인 설명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충실하고 명확한 해설을 위해서는 감수 뿐 아니라 연구자들의 역사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다행히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들이 갖고 있던 역사 지식으로 질

적으로 좋은 결과물을 얻었다고 할 수 있다. 작업 과정에서 지눌스님이 조선시대 선승으로 잘못 표현된 원문의 오류를 찾아 수정한 사례도 있다.

다음 사업에서 기회가 된다면 수어해설사, 감수를 비롯한 연구자들의 역사 지식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도 병행되기를 바란다.

9) 외부 감수자의 감수내용에 대한 지침 필요

본 사업은 기존의 작업들과 달리 현장에 감수자 외에 수어해설문 작성을 담당할 연구자가 배치되어 수어의 표현은 물론 내용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이렇게 완성된 내용을 외부 감수자들을 통해 다시 확인을 받았는데 특별한 지침을 마련하지 않고 감수를 맡긴 결과 내용의 전달과는 무관한 지엽적이고 주관적인 의견들을 보내온 경우가 많았다.

이에 마지막 감수를 의뢰할 때 수어의 정확성과 내용의 이해에 중점을 두고 감수를 부탁한 결과 수공할 만한 감수의견을 받았다. 따라서 다음 사업에서는 감수 지침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 참고문헌

국립국어원·한국농아인협회(2014). 「수어 기반 문화 정보 접근 환경 지원 기초 조사」.

국립국어원·한국농아인협회(2014). 「한국수어 연구 자문 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서」.

국립국어원·한국농아인협회(2015). 「한국수어 전문용어, 문화 정보 구축 결과 보고서」.

국립국어원·한국농아인협회(2016). 「문화 정보 해설 한국수어 영상 자료 구축 결과 보고서」.

김철관·윤병천(2014). 『농문화 입문』. 대구: 정림사.

국립국어원. <http://www.korean.go.kr>

국립국어원 한국수어사전. <http://sldict.korean.go.kr>

국립광주박물관. <http://gwangju.museum.go.kr>

국립김해박물관. <http://gimhae.museum.go.kr>

국립대구박물관. <http://daegu.museum.go.kr>

국립전주박물관. <http://jeonju.museum.go.kr>

국립제주박물관. <http://jeju.museum.go.kr>

국립청주박물관. <http://cheongju.museum.go.kr>

문화체육관광부. <http://www.mcst.go.kr>

문화재청. <http://www.cha.go.kr>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www.heritage.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Abstract>

The Production of Korean Sign Language Video Materials to Increase Access to Cultural Information

This study set out to make Korean sign language videos on cultural information about public cultural facilities, thus creating an environment of better access to cultural facilities and information for deaf people and increasing their cultural rights.

The investigators made Korean sign language videos based on the materials(original texts and photographs) about the major artifacts of museums including national museum as seven public cultural facilities provided assistance on the project including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The materials covered total 451 artifacts including 60 from the Gwangju National Museum, 60 from the Gimhae National Museum, 50 from the Daegu National Museum, 61 from the Jeonju National Museum, 60 from the Jeju National Museum, 60 from the Cheongju National Museum, and 80 from the Busan Metropolitan City Museum. The materials were then rewritten in easy terms by a Korean expert. The investigators wrote expository texts for the materials in Korean sign language. Four deaf sign language models were selected, increased their understanding and sensibility of cultural information in a one-on-one education session with a field supervisor, and participated in the video making process.

Through this study,

First, the Korean sign language cultural information video materials should be distributed to the concerned cultural facilities so that deaf people visiting those facilities can watch and use them easily by

using Korean sign language explanation video equipment or smartphone. The video materials should also be connected with the web dictionary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so that deaf people can look up cultural information conveniently any time, any place and participate in the activities to enjoy cultural information vigorously.

Secondly, the video materials can be utilized in the concerned expert fields and distributed to special education institutions where they can be put to various uses as educational materials for deaf children and serve as educational content to bring up sign language models and interpreters.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that it made expository Korean sign language cultural information videos for deaf people with limited access to cultural facilities, helped them access and use cultural information more freely, and promoted their cultural right and quality of life.

Finally, the study made the following suggestions:

Given a need to carry out a project on Korean sign language videos in a continuous manner, it is required to produce sign language models with professionalism, as well. It is also needed to investigate the actual uses of such video materials in the field and come up with promotional plans for more of deaf people to visit cultural facilities and make use of materials.

Keywords: Korean sign language, cultural information, the Deaf, national museum

문화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한국수어 영상 자료 구축

부록1. 수어해설문 작성 지침(안)

부록2. 문화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한국수어 영상 자료 구축 사업 원고



□ 부록1. 수어해설문 작성 지침(안)

‘문화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한국수어 영상 자료 구축 사업’ 수어해설문 작성 지침(안)

수어 해설문의 목적

- 유물 설명문을 놓인 수어해설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듬고 정리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어 해설문 작성 지침 및 한계

- 수어 문단의 구조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현 상황에서 객관적이고 정형화된 지침을 작성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사업을 수행하는 강원도농아인협회 연구진은 회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수어해설문 작성 지침을 정하여 작업을 수행한다.

〈 작 성 지 침 〉

첫째, 한글 해설문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으로 재구성한다.

둘째, 전시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정보를 선 배치하고, 역사, 문화, 사회적 배경 등은 후 배치한다.

셋째, 한글 해설문의 내용을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다음과 같이 내용을 구조화하되 제시된 내용의 범위에서 순서에 따라 작성한다.

1. 전시물의 명칭 또는 전시물을 포함한 상위어
2. 전시물의 용도 설명(전시물을 다루는 동작 포함)
3. 전시물의 재료 및 특징
4. 전시물의 발견(활동) 시기 및 장소
5. 전시물의 역사, 문화, 사회적 배경

위 순서를 원칙으로 하되 제시된 내용의 자연스러운 전개를 위해 순서가 바뀌거나 내용이 합쳐질 수 있다.

○ 수어 해설문은 한국어 해설문을 한국수어로 번역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 따라서 농인 해설사가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어휘의 단순화를 비롯해 내포문을 접속문으로 바꾸는 등 문장구조가 변형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어 문법을 기준으로 봤을 때 비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사업에서는 수어해설문을 박물관에서 검수하므로 수어에 대한 이해에 한계가 있어 한국어 문법에 맞추어 작성한다.

예시)

한국어 해설	심재 김석익이 추사 김정희에 대한 존경을 담아 그린 김정희의 초상화입니다
수어해설문 I (현재)	심재 김석익의 그림이다. 그림 속 인물은 그가 존경하는 추사 김정희이다.
수어해설문 II	이것은 심재 김석익이 그렸다. 그림 속 얼굴은 누구? 김석익이 존경하는 사람으로 이름은 추사 김정희